

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과정 수립·변경 의결에 대한 의견

교사노동조합연맹

(현황)

- 국가교육위원회(국교위)는 26일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초·중학교 신체활동 강화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·변경 요청을 심의·의결함.
- 35년 만에 초1, 2학년에서 '체육'교과 분리 추진이 진행될 예정임. (1989년부터 적용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, 초 1·2학년에서 체육이 즐거운생활에 포함 시행됨.)
- 2022교육과정은 2021년 5월부터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총론을 개발하고, 2022년 12월 22일 초·중·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을 고시하였음. 2024년은 교육주체의 오랜 숙의 결과 2022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 시행된 첫해이며, 중학교에는 아직 시행도 되기 전이며, 학교 현장에서는 체육교과 분리에 대한 요구가 없었음.

(문제점)

-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 없는 일방적 추진
 - 전국 초등 교사 98%가 반대(총 응답자: 7,013명)했음에도 일방 추진 결정
- 초등 1, 2학년의 체육교과 분리의 필요성 모호
 - 발달단계를 고려할때 통합교과 운영이 필요함.
 - 현재의 통합교과 내용상 운동량이 충분하며, '체육'교과 분리와 관계 없이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고려되고 있음.(교사가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)
- 학생들의 체육 활동 부족은 교육과정 아닌, 공간 부족이 원인
 - 학교에서 체육 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공간상 제약(날씨, 공간 부족 등)때문
- 국교위의 국가교육과정과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의구심
 - 전문성과 현장적합성을 가진 현장 교사 위원 0명

(요구사항)

- 국교위는 국가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결정 시 교육주체 의견 반영하여 신중히 검토하라. **특정교과의 교육과정 개정 추진 '중단'**하라.
-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 기능을 다하려면, 국교위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**현장 교사들의 참여를 보장**하라.
-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적합성을 높이려면, **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마련**하라.
- 대한민국 학생들의 신체활동 강화를 가로막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, **현장 교육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**하라.

[참고]

<초1, 2 체육교과 분리에 대한 현장교사 의견 조사 결과>

- 일시: 4월 23~24일
- 대상: 전국 초등학교 교사
- 총 응답자: 7,013명
- 주관: 초등교사노동조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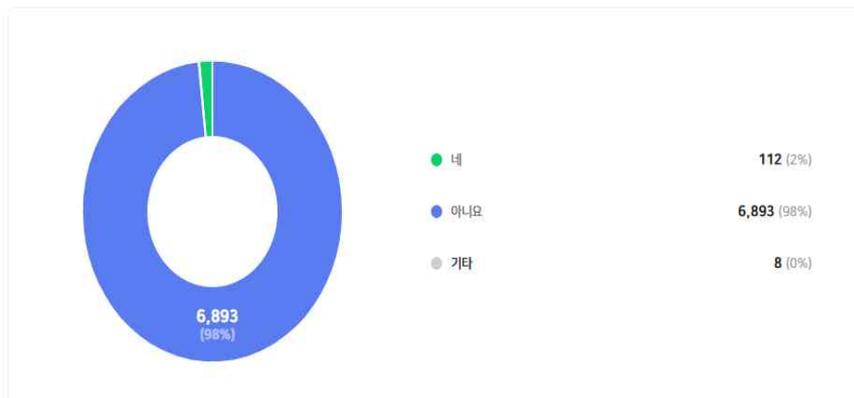
1. 2022 개정교육과정 시행 직후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주체 의견수렴 없이 특정교과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? **아니오 98%(6,893명)**

객관식

4. 2022 개정교육과정 시행 직후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주체 의견수렴 없이 특정교과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?

답변 7,013 · 미답변 0

항목순 | 답변 많은 순



2. 2022교육과정 상 학생의 운동량이 부족한지 묻는 질문에, 부정응답 76%. 즐거운생활 교과가 초1, 2학년 발달상황에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, 긍정응답 84%.



3. 즐거운 생활 교과에 음악, 미술, 체육이 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, 긍정응답 85%. 학생들이 즐거운생활 교과의 체육활동에 만족하는 편인지 묻는 질문에, 긍정응답 88%.



4.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 충족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 92%. 전 교과(국어, 수학, 창체 등) 수업에서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88%. 체육 활동 공간상 제약(날씨, 공간부족 등)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1%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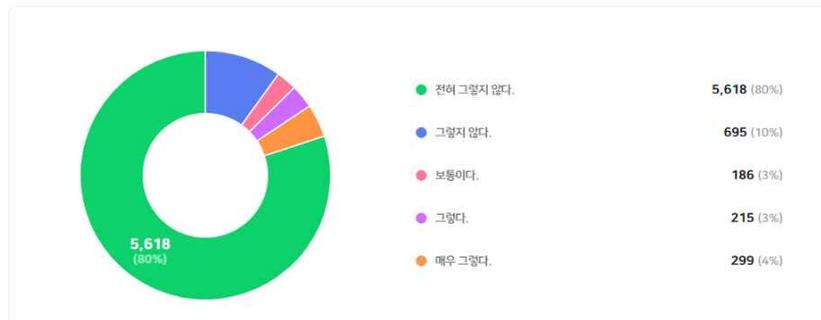
5. 즐거운생활 교과에서 체육 교과의 분리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부정응답 90%(전혀 그렇지 않다 80%, 그렇지 않다 10%).

객관식

6. 즐거운생활 교과에서 체육 교과의 분리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?

답변 7,013 · 미답변 0

형목순 | 답변 많은 순



6. 교육부가 내세운 추진 필요성과 분리 방침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, 추진 필요성과 방침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, 필요성만 동의한다는 의견이 그 다음을 이어, '초1, 2 체육교과 분리 방침에 반대한다'는 의견이 94%였다.

표형

7. 교육부가 내세운 다음의 추진 필요성에 따른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초1,2 체육 교과 분리 방침에 동의하십니까?

답변 7,013 · 미답변 0



7. 초1,2 체육 교과 분리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.

8. (분리추진 '반대' 응답자만) 2022

답변 6,634 · 미답변 379

2022 교육과정 시행 직후 또 다른 개정 논의에 반대함. 2,504 (14%)

정을 통한 초1,2 체육 교과 분리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
항목순 | 답변 많은 순



초1,2 체육 교과 분리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를 중복 선택해 보도록 한 질문(n=6634)에는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5.6%로 가장 높았고, 발달단계를 고려한 통합교과 운영의 필요성에 반해서 반대함(57.5%), 외부 인력(강사 등)과 사설업체 등 비교육전문가 개입 우려로 반대함(48.7%), 외부 인력(강사 등)과 사설업체 활용에 따른 인력관리 행정업무 증가 우려로 반대함(38.8%), 2022 교육과정 시행 직후 또 다른 개정 논의에 반대함(37.7%)이 뒤를 이었다.

기타 서술 의견으로 학교 현장에 체육 활동 공간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, 과밀학급 개선 또한 촉구하였다. 분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정규 초등교원 확충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, 교육의 주체라는 이유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박탈하면서 교육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에 분노한다는 의견 피력도 있었다.

2024. 4. 29.



다함께 행복한 교육

교사노동조합연맹